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7월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39번(하나 되게 하소서)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9,36-41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새 가족 찾기 선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7월 9일은 예비자 입교식입니다)
- 본당 30주년의 내적인 준비로 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시다.(성경 읽기표 참조)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63번(온 세상에 전파하리)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1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대희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8. 대희년의 결실은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적인 문서에서 저는, '높은 수준의' 성덕을 목표로 하고 특히 기도의 기술을 통하여 이행되는 교회 교육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사목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30-32항: AAS 93(2001), 287-289 참조. 전례, 특히 성찬 생활의 촉진을 위한 노력 없이 어떻게 그러한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는, 특히 공의회 이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성사 거행 방식, 특히 성찬례 거행 방식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진전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주일 성찬례와 주일 자체를 강조하여야 합니다.

주일은 특별한 신앙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성령을 주신 날, 진정한 주간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곳, 35항: 같은 곳, 290-291. 기도에 대한 훈련의 맥락에서 저는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성무일도를 통하여 교회는 하루의 시간들과 전례 주기를 성화하기 때문입니다.

9. 이어서, 묵주기도의 해를 선포하고 교황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ts Mariae)를 발표하면서, 저는 성모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제로 돌아갔으며,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다시 한 번 장려하였습니다.

교도권이 높이 장려하고 하느님 백성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이 전통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신비들을 관상하고 성모송을 반복하여 바침으로써 성서와 복음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그 반복되는 흐름을 통하여, 당신 아드님께 대한 성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사랑의 학교' 입니다. 따라서 저는 빛의 신비를 추가함으로써 수세기에 걸친 오랜 전통을 발전시켜, 이 탁월한 형태의 관상을 더욱 완전한 "복음의 요약"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ts Mariae), 2002년 10월 16일, 19-21항: AAS 95(2003), 18-20 참조.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빛의 신비는 거룩한 성체성사에서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성서묵상〉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 요한 9,36~41 -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뒤 바뀔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즉 신앙의 눈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먼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믿고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 과 '시력' 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으며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고 있어도 눈이 먼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관건은 우리 자신의 시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는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소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하면 이는 스스로 눈이 잘 보인다고하는 사람들의 시력보다 더 복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결국 진리의 완전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즉 신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눈 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는 사람' 이란
스스로 눈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41절 참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봄'** 이 오히려 눈을 가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실상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그 **'눈'** 이 멀어야 한다.

다르소 사람 사울은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먼저 그 눈이 멀어야 했습니다.(사도 9,9 참조)

<나눔>

나의 신앙의 시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 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